

C9001 TR 글로벌채권 FOF(달러형)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장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TR 글로벌채권 FOF(달러형)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약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약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우리글로벌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TR 글로벌채권 FOF(달러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J102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13.05.09
운용기간	2020.01.01 ~ 2020.03.31	존속기간	추행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 투자목적은 글로벌 시장의 우량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상장집합투자증권(ETF) 등에 투자하여 적정 수준의 자본 이득과 이자 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천USD, 천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TR 글로벌채권 FOF(달러형)	자산 총액 (A)	355	287	-19.20
	부채 총액 (B)	0	0	-11.36
	순자산총액 (C=A-B)	355	287	-19.20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31,271	25,134	-19.62
	기준가격 (E=C/D×1000)	11.36	11.42	0.53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미국 채권 시장은 2020년 연초 미중 무역갈등 완화와 경기 개선감에 금리 상승 압력을 받았으나, 중동 사태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계속되는 이벤트 리스크로 미국은 채권 금리가 강세를 보이며 전년도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팬데믹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에 극심한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기물 대비 단기물 금리 낙폭이 더 컸는데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와 T bill 매입 장기간 지속 기대 등이 단기물 금리 낙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3월초 높아지는 팬데믹 공포에 연준은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유가 급락에 신용위기가 불거지고 국제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100bp 금리 인하와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을 단행했습니다. 미국채 금리는 단기적으로 급등했지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금리 하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달러강세는 심화되었고, 주요국 통화 중 달러대비 약세를 보인 곳은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 노르웨이 등으로 원자재 가격과 중국 경제와 관련이 높은 통화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펀드멘탈 관점에서 코로나 19 영향으로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 컨센서스는 하향 조정되고 경기 충격이 가시화되면서 자금 사정 악화가 우려됩니다.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는 대외수요 둔화에 의한 경기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Prime MMF의 자금 이탈로 CP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CP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은행간 자금시장에서도 Libor-OIS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며 불안정한 모습

입니다. 유동성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며, 연준의 유동성 공급 속도조절이 추세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빠른 정책 대응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금리가 안정되고 국내도 정책노력이 가세하면서 국제시장은 일부 안정 심리가 회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위펀드는 듀레이션은 일부 확대하면서 BM대비 O/W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채 듀레이션은 전반적으로 소폭 길게 유지하고 있으며, 중기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미국 성장을 트랜드가 낮아지고 있어 미국채 금리는 일정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글로벌 저금리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채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상승 시 미국채 금리보다 타국채 금리가 더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반대로 안전자산 선호 시에는 미국채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동 펀드는 벤치마크와의 비중을 크게 확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초과 수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TR 글로벌채권 FOF(달러형)	0.53	-0.70	1.87	4.67
(비교지수 대비 성과)	(-0.75)	(-1.22)	(-1.43)	(-1.84)
비교지수(벤치마크)	1.28	0.52	3.30	6.51

* 비교지수(벤치마크): (Bloomberg Barclays US Aggregate Bond Index(T-1) X 29% +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ex-USD Float Adjusted RIC Capped Index(USD Hedged)(T-1) X 66%)X 10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TR 글로벌채권 FOF(달러형)	4.67	7.46	9.31	11.33
(비교지수 대비 성과)	(-1.84)	(-3.84)	(-3.39)	(-3.99)
비교지수(벤치마크)	6.51	11.30	12.70	15.32

* 비교지수(벤치마크): (Bloomberg Barclays US Aggregate Bond Index(T-1) X 29% +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ex-USD Float Adjusted RIC Capped Index(USD Hedged)(T-1) X 66%)X 10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 천USD)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전기	6	0	0	-10	0	0	0	0	0	0	-1	-5
당기	0	0	0	3	0	0	0	0	0	0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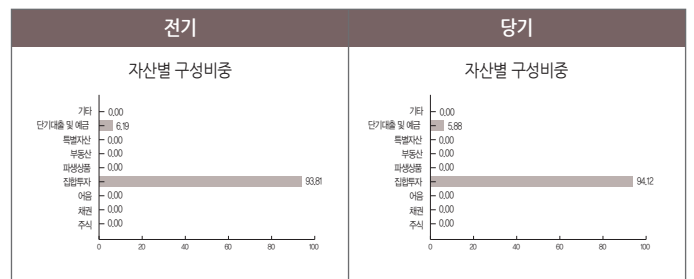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천USD,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USD (1217.40)	0	0	0	270	0	0	0	0	0	17	0	287
합계	0	0	0	270	0	0	0	0	0	17	0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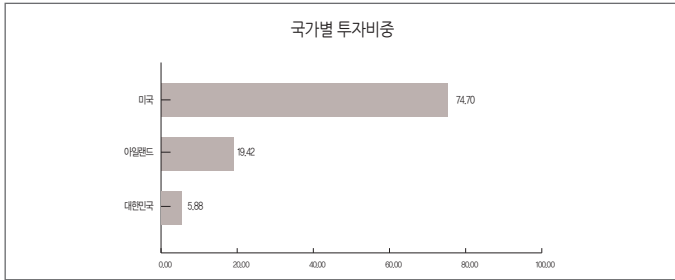
* () : 구성비중



▶ 국가별 투자비중

(단위 : %)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1	미국	74.70	6		
2	아일랜드	19.42	7		
3	대한민국	5.88	8		
4			9		
5			10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VANGUARD TOTAL INTL BOND ETF	65.03	6			
2	집합투자증권	PIMCO-TOTAL RTRN BD-\$INS ACC	19.42	7			
3	집합투자증권	ISHARES CORE U.S. AGGREGATE	9.67	8			
4	단기상품	USD Deposit	5.88	9			
5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 좌수, 천USD, %)

종목명	종류	자산운용사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VANGUARD TOTAL INTL BOND ETF	수익 증권	Vanguard Total International Bond ETF	187	187	미국	USD	65.03
PIMCO-TOTAL RTRN BD-\$INS ACC	수익 증권	PIMCO Global Advisors (Ireland) Limited	55	56	아일랜드	USD	19.42
ISHARES CORE U.S. AGGREGATE	수익 증권	iShs Core U.S. Aggregate Bond ETF	27	28	미국	USD	9.67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주, 천USD,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외화예치금	한국씨티은행	2013-05-09	17	0.00		대한민국	USD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41	77	2,276,163	-	-	2119000125
김태현	과장	37	77	2,276,163	-	-	2119000109
최명혁	사원	28	77	2,276,163	-	-	2119000110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19.01.24 ~ 현재	최명혁
2018.05.29 ~ 2019.12.06	차인식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천USD,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2	0	0.02	
판매회사	0	0.08	0	0.08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10	0	0.10	
기타비용	0	0.02	0	0.05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2	0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2	0	0.01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냄.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하였습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5633	0.1158	0.6791
당기	0.6076	0.1356	0.7432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TR 글로벌채권 FOF(달러형)'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당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